

## 耕地整理事業의 當面課題와 改善方向

金 哲 基

(農博·忠北大學校 農科大學 教授)



工業化에 따라 더하여만 가는 農村일손의 不足現象은 農業機械化의 促進을 크게 서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農業機械化基盤事業으로서 耕地整理事業이 推進되어 오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처럼 農業機械化基盤造成을 위한 耕地整理事業의 擴大實施가 크게 要請되는 때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날 耕地整理事業은 農業機械의 普及問題 以上으로 先急하여, 앞으로 이 事業을 大的으로 實施하지 않고서는 効率的인 機械化는 到底히 이룩할 수 없는 狀況下에 있다.

오늘날까지 實施하여온 耕地整理事業이 안고 있는 計劃上, 技術上의 여러 問題點을 살펴보면

- ① 事業의 性格을 너무나 좁은 次元에서 보고 近視眼的 計劃에 그치었고
- ② 現在의 耕地整理對象面積의 策定根據 및 區劃基準이 너무나 莫然할 뿐만 아니라 農業機械化効率性問題와 的連結性이 缺如된 點이 많아 實際的인 機械利用에 있어서 많은 問題에 부닥치게 되고
- ③ 耕地整理에 對한 理念과 理論을 充分히 認識하지 못한채 單只 機械의 設計에 그치는 傾向이 있고
- ④ 마땅히 成就되어야 할 耕地의 所有者別 集團化가 거의 안되고 있고
- ⑤ 그나마도 現在까지 實施하여온 耕地整理의 對象이 一邊倒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問題點을 解決하고, 効率的인 耕地整理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指向할 우리나라 耕地整理事業의 基本方向을 再定立하여 나갈 必要性이 切實하다. 이런 點에서 이 事業의 基本方向에 對한 當面課題와 그 改善點에 對하여 몇가지 強調하고 싶은 點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耕地整理事業은 將來指向的인 農業構造改善 또는 農村構造改善에 符合하는 方向에서 事業計劃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農業基本法의 基本精神을 살려, 앞으로 指向할 2,000年代의 農業構造 또는 農村構造의 靑寫眞을 想定하여, 마을 敷地와 같은 非農用地까지도 農用地와 함께 農村全體開發面에서의 生産用地의 整備란 次元에서 耕地整理事業이 推進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即 耕地整理事業計劃에 있어서 옮겨야 할 聚落은 그 移轉計劃을, 點在하여 있는 農家は 마을 集團計劃에 包含시켜-마을, 共同利用施設의 候補敷地까지도 包含해서-앞으로 想定되는 聚落計劃과 調和있고 連繫性 있는 計劃下에 耕地整理가 推進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한 필지의 크기에 對하여도 現施行基準에 符合시키는데만 滿足할 것이 아니라 發展變貌하는 營農形態 機械化條件등에 따라서는 한베미의 크기가 極限的으로 한個의 圃區(畝區)의 크기로 까지 擴大 可能할 것이므로 性能이 큰 새로운 農機械의 導入이 必要하거나, 協業化란 새로운 營農組織이 登場하게 되어 한필지의 크기를 또다시 擴大시킬 必要性이 있는 경우에는 논두렁의 處理만으로 언제나 簡單히 變更될 수 있는 方向에서 地形이 許諾하는 限 同一標高로 連結되는 땅고르기 面積이 크게 되게 計劃하는 方法을 講究

할 일이다. 그리고 農道計劃만 하여도 農道自體가 논두렁 처럼 可變의 性格이 強한 便이어서, 앞으로 想定되는 機械化體系를 十分 檢討하여, 이룩하여 놓은지 얼마되지도 않은 耕地整理地區의 農道가 좁아서 이제 다시 擴大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과 같은 前轍을 다시 밟지 않은 方向에서 綿密한 計劃이 있어야 한다.

② 앞으로 登場될 農業機械의 機種 및 이에 따르는 各種機械化體系를 充分히 檢討想定하여 耕地整理對象面積을 體系있게 策定할 일이다. 政府에서 策定하고 있는 耕地整理計劃面積 588,000ha는 機械化可能總面積으로서가 아니고, 그것도 논에 局限시켜서 水利安全畜化可能面積의 50%만이 耕地整理가 可能할 것이라는 單純한 假定下에서 策定한 것이었다. 앞으로의 計劃에 있어서는 말까지도 耕地整理對象에 包含시켜, 想定되는 各種機械化體系 및 地形에 따라 大型機械化體系可能面積, 中型機械化可能面積, 小型機械化可能面積이 各各 얼마가 되며 또 全體耕地整理對象面積은 얼마가 되는지를 綿密히 調查分析하여 體系있게 耕地整理를 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耕地整理事業의 施行이 平野部 또는 路邊畝에 偏重되고 있는 傾向은 이를 指揚하고 機械化의 必要性이 強한 地區로부터 優先順位를 定하여 農村勞動力不足이 實質的으로 解決될 수 있는 方向에서 可及의 끝고루 全域에 擴大實施되도록 할것이다.

지금까지의 耕地整理事業은 그 進陞狀況이 大端히 不振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 地域에서 본 機械化의 必要性에 依한 것 보다는 單位面積當의 工事費가 적은 平野部 또는 展示效果의 目的이 짙은 路邊의 논에 偏重되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의 農業機械化의 必要度는 農村勞動力의 不足이라는 觀點에서 볼때, 山間 마을, 中山間마을, 平野마을 할 것 없이 모든 마을이 거의 같은 事情이다. 單位面積工事費는 地形이 急한 地帶일수록 좀 不利한 點은 있으나, 비탈로 된 田畝에 따라서는 排水만 圓滑히될수 있다면 논두렁 바로잡기와 農路만 適切히 附設하여도 一小型機械利用이 前提가 되겠지만 一機械化가 可能할 것이므로, 이경우 그리 크게 工事費가 加重되지 않는다는 點을 함께 생각하여 볼때, 앞으로의 耕地整理事業의 推進에 있어서는 耕地整理가 可能한 곳은 그것이 小型機械化條件이 되든 大型機械化條件이 되든, 또는 山間, 中山間이든 平野部이든 그 地域의 機械化의 必要度에 따라 優先順位를 定하여 眞實로 農村勞動力不足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施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④ 耕地整理事業의 果敢한 擴大를 위한 施策이 要請된다.

現在까지의 우리나라가 이룩하여 놓은 總耕地整理面積은 總農耕地面積 244萬ha中 約 31萬ha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遲遲不振한 것이 事實이다. 그중地形上의 制約으로 耕地整理가 不可能한 面積도 相當히 있기도 하지만, 이제까지 처럼 年間計劃面積이 2萬ha도 못되는 狀況下에서는 耕地整理進陞率이 農業機械의 普及率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大端히 不振하여, 農業機械는 있어도 耕地整理가 되어 있지 않아 農業機械를 使用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財政的 어려움도 있겠지만, 地形上 논두렁 바로잡기와 農路整備程度로 機械化가 可能케 되는 簡單한 耕地整理事業은 새마을 事業次元으로 한다든지 하여 年間實施面積을 可能한 限 大幅的으로 增大시켜 名實共히 農業機械化 基盤을 좀더 早速한 時日內에 擴大하여 나갈수 있는 方向의 果敢한 施策이 必要하다.

⑤ 用水節減과 作業能率을 크게 向上시키는 方向에서의 排水의 圓滑을 期하는 同時에 耕地의 汎用化를 期할 일이다.

耕地整理計劃에서 用水節減을 위한 用水反覆利用對策과 農業機械作業能率에 決定的要因이 되는 排水條件의 整備對策은 가장 重要한 問題中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耕地整理地區를 보면 耕地整理後에 더욱 많아질 浸透量 및 管理消費水量으로 해서 排水路內로 無用하게 버려질 물의 再利用에 對한 對策이 거의 마련되지 못하고, 한편 排水路設計 및 땅고르기 施工에 있어서도 地下排水面은 勿論 畝面排水의 重要도가 그리 反映되지 못하고 있어서, 作業能率面에서 機械化基盤으로서의 不足한 點이 相當히 많다. 따라서 灌溉用水의 效果의인 利用을 위해서는 排水路에 無用하게 버려지는 물을 可及의 再利用할 수 있는 方向에서 用排水路組織 및 물의 反覆利用施設을 計劃하여 用水節約을 期하는 同時에 地下排水 및 畝面排水의 良

否가 農業機械의 作業能率에 얼마나 크게 影響을 미치는 가를 잘 研究檢討하여 적어도 機械의 作業能率을 크게 올릴수 있게 함은 勿論 논밭 畦두루 利用할 수 있는 耕地의 汎用化를 期하는 方向에서 綿密한 用排水計劃을 세워야 할 것이다.

⑥ 可能的 限 所有者別 耕地集團化를 成就시켜나가야 할 일이다.

所有者別 耕地의 集團化는 耕地整理에서 成就시켜 놓아야 할 重要的 目的의 하나이다. 이리함에도 耕地整理에서 換地라면 主로 複雜性이 적은 原地換地를 實施하여 온 關係로 各者의 耕地의 集團化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各者耕地의 높은 分散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營農上의 勞力節減에 많은 支障을 주고 있다. 耕地의 集團化는 社會的 自然的要因 등으로 해서 어려운 면이 있겠으나, 協業化營農 이되든, 農家個別營農이 되든, 可能的 限 自己農地의 集團化는 農業機械化 및 勞力節減面에서 크게 有利한 것이므로 農民에 對한 이에 關한 啓蒙을 徹底히 하여, 앞으로의 耕地整理地區에서는 耕地의 集團化가 반드시 成就되도록 特別한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⑦ 耕地整理事業에 關한 Seminar 및 教育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實施되는 耕地整理가 얼마까지 남아 다시 變更되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變更되어야만 하는 事情에서도 그것이 最小限으로 끝일수 있고, 耕地整理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는 設計者 自身이적어도 2,000年代를 向하는 長期的構想에서 計劃할 수 있는 基本的인 專門知識을 갖추워 나가야 한다. 이런 點에서 耕地整理에 從事하는 사람에 對한 專門教育의 強化 및 Seminar 등을 자주 열어 이에 對한 農工人 스스로의 資質을 繼續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